

## ■ EU 산업협회, LCD 폐기물 분리 처리 반대

- 전자장비에 쓰이는 액정화면<sup>1)</sup>은 환경에 위해하지 않으므로 전자제품을 폐기할 때,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ORGALIME<sup>2)</sup>은 주장함
  - 협회는 LCD 분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분리해도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에도 환경적인 위해나 보건 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강조함
  - 따라서 LCD 분리 강제 조항은 환경적인 목적으로 입안된 것이 아니라 는 의혹을 제기함
  - ORGALIME은 이미 WEEE 지침 초안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담은 발간물을 간행하였고 9월 13일에 발간된 간행물에서는 LCD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등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
- 유럽집행위원회는 WEEE 지침 초안에 첨부된 설명문에서 LCD에 관해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토론을 거쳐 분리 처리안을 결정하였다고 밝힘
  - 지난 6월초에 발표된 폐전기·전자제품 처리지침(WEEE<sup>3)</sup>) 초안에서 LCD를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 유럽집행위원회는 LCD가 환경적으로 유해함을 지적함
  - 초안에는 LCD에 사용된 화학물질들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소각 처리할 경우에 유독물질로 변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됨
  - 따라서 음극선, 배터리 등 7개 품목과 같이 LCD를 폐기물 처리시에 미리 분리해야 하는 유해 폐기물로 분류하여 부속서 목록에 포함 시킴
  -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LCD 제조업체는 자사 LCD가 위험스럽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함

1) Liquid Crystal Display

2) ORGALIME은 18개 유럽 국가의 유럽 기계, 전기, 전자 및 금속공예 산업을 대표하는 유럽산업연합회로서 1954년에 설립됨

3)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

- 특히 EU 권역으로 수입되는 특정 제품群的 환경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LCD의 분리 처리 조항을 삽입하였다고 주장함
- EU가 요구하는 제품의 환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EU로의 수출은 향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
- WTO는 환경위해를 막기 위한 수입규제 조치를 이미 승인한 바 있으며 무역과 환경의 연계 전략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
  - EU의 환경규제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을 통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제품의 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가일층 이루어져야 할 것임